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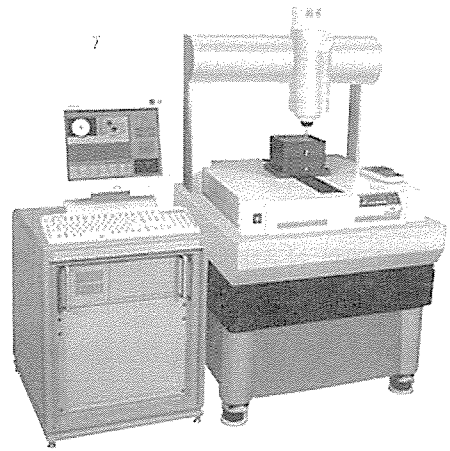
“불황의 늪속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과시”

서울대학교 1호 벤처

1998년 서울대학교 1호 벤처로 출발한 SNU Precision(에스엔유 프리시전 대표 박희재)은 2000년 응용광학기기 기반의 한라옵티칼엔지니어링을 인수합병하여 기존의 세계최고 수준의 비전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인력과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다. 광통신부품, 광소재 검사장비를 비롯해 3차원 미소형상 측정장비, 2차원 범용형상 측정장비 등을 출시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1년 개발한 FIS-100 (Ferrule Inspection System)은 광통신 부품인 페룰(Ferrule)의 내심 직경과 진원도, 외심 직경과 진원도 그리고 동심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다심 페룰의 경우 두 내심의 Separation까지도 측정해내는 초고정밀도의 비접촉 측정장비이다.

또한 3차원 미소형상 측정장비(SIS-1000)는 최근 개발한 제품으로 극미세 표면 정밀 검사 장비로 반도체 웨이퍼와 각종 전자부품의 표면의 사태를 광학 원리를 이용해 측정, 3차원 정미영상으로 구현해 검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높여주는 또 하나의 최첨단 장비이다. 그리고 최근 개발에 성공한 원자력 현미경(AFM) 또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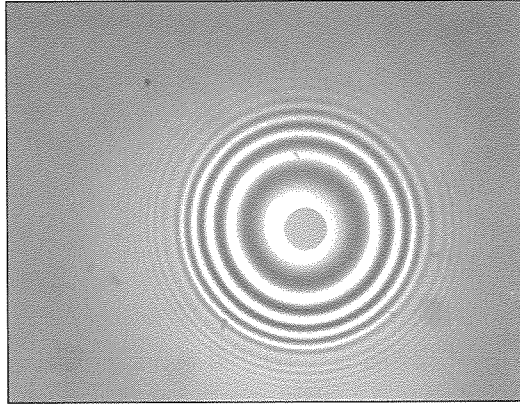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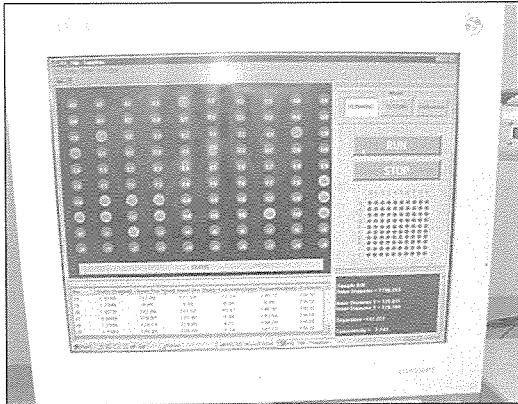


비접촉 3차원 형상측정이 가능한 FIS-100

세계적인 기술력 과시

에스엔유 프리시전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1년 7월 국내 굴지의 벤처캐피탈인 KTB Network과 산은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Fund-Raising)에 성공하였으며, 제 31회 정밀기술진흥대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제 1회 산업기술혁신대전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등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 받으며 거칠게도 불어닥쳤던 불황의 늪이었던 지난해 에스엔유 프리시전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공동 대표이사에서 CEO로 자리를 바꾼 박희재 사장은 중국 연길지역에 현지법인인 SNU-YANJI Co.을 설립하여 의료영상장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SNU-USA Inc.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정밀측정 장비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대만 케테카 전자와 판매



대리점 계약, 일본 히타치와 군호등과 판매대리점 계약 등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과 프랑스, 독일 등 EU 전역을 아우르는 Global Sales Network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속의 에스엔유 프리시전으로 자리 매김해 가고 있다.

열정과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인력 구성

대학교수들이 창업한 수많은 벤처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유달리 에스엔유 프리시전만이 불황을 헤치고 세계 속으로 약진하는 이유를 박희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사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닷컴 붐기속에서 에스엔유 프리시전의 약진은 세계수준의 기술력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대 석, 박사 출신 연구인력과 오랜 현장 경험을 지닌 생산기술 인력의 시너지 효과에서 시작되는 에스엔유 프리시전만의 강력한 연구능력은 버블경제에 편승하려했던 수많은 벤처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냈고, 열정과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에스엔유 프리시전의 발전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라며 인력의 중요성

을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하는 EU, 아시아의 거대시장 일본, 중국, 대만 등지의 현지 법인들과 판매대리점 등 지난 일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축한 Global Sales Network 또한 저희 에스엔유 프리시전이 불황을 극복하고 약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벤처업계에 팽배했던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와 같은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태를 지양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이 경영진 스스로가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으로 임하고 있는 것 또한 저희 에스엔유 프리시전의 강력한 경쟁력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해 당초 목표치보다 낮은 30억원대의 매출이 예상되지만, 해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는 올해에는 100억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2~3년 후에는 매출 200억원대의 견실한 중견 벤처기업으로 성장,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회사관계자는 밝혔다.

〈취재/윤희진 차장〉